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Process of Young Job-Seeker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박사과정 공수연*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Doctoral Student : Kong, Su-Youn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Abstrac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young job-seekers' preparation for employment process. Participants for the present research include 30 unmarried single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who are preparing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ng four-year colleges. To follow the rule of data triangulation, data includes in-depth personal interviews, field notes, memorandums, coding books, and additional questionnaires. There are 556 abstracted meaning units, 15 subcategories, 11 main categories, and final 5 themes from the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young job-seekers were experiencing a typical cycle of preparation, attempt, failure, slump, and downgrade in job seeking standard. It is also observed that youth unemployment was a persistent phenomenon of vicious circle not easy to overcome. Especially, young job seekers were reported to restructure the perception on employment as they struggle for seeking a job, in particular, at times of experiencing hardship during the job hunting process. The interviewees responded that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job declines as the job hunting period drags on eventually ending up with applying for a job of lower qualification standard.

▲주요어(Key Words) : 청년실업(youth unemployment), 구직(job-seeking), 취업준비(employment preparation),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과정중심(process-oriented)

I. 서론

구직(求職)이란 일정한 직업을 찾음을 뜻한다. 직업이 개인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Tolbert, 1974)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취업준비 과정은 청년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일 수 있다. 통계청(2011a)은 '2011년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자 규모를 27만 9천명으로 집계하였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수강, 취업준비 등에 속하는 취업준비자는 53만 명, '쉬었음'으로 응답한 20대는 28만 3천명, 구직단념자 17만 8천명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 100만 명을 넘어선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청년구직자들을 일컬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 주저자 : 공수연 (E-mail : kongsu99@paran.com)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세대', 구직난에 인턴 생활로 내몰린 '인턴세대', 20대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뜻하는 '88만원 세대'로 지칭한다(국민일보, 2010).

이렇듯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에 대한 검토,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정책과 구조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의 관계, 취업대처행동의 영향 관련 변인 탐색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Kim & Min, 2006; Lee & Lee, 2009).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실증주의(positivistic) 인식 틀에 입각하여 기계적 인과론에 의한 구조화된 양적 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이 체계적으로 복잡하고, 다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외현적 행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의도, 정서, 지각 등 내면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해석학적(interpretive)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규명보다 현재 미취업 중인 청년구직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청년실업 현상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실제 청년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가치관, 구직과정, 어려움, 대처방법, 미취업 귀인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직업에 비추어 자신의 능력과 흥미 그리고 가치를 재어 보는 단순히 합리적인 과정은 아니다(Van Esbroeck, Tibos, & Zaman, 2005). Ginzberg (1968)는 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발달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환상적 단계이고, 2단계는 자신의 소망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잠정적 단계이다. 3단계는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직업을 선택한다. 이처럼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발달과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일정부분의 역할을 취하면서 보수를 받는 협의의 개념 외에 취업동기 등의 개인내적 요인,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외적 요인, 더 나아가 거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요인 등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다각적으로 얽힌 상태에서 함께 고려된다. 즉, 개인과 환경 간 체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된다.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선적 인과관계로 보기보다는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문자 등, 2007). 즉, 청년실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들을 둘러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체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년실업과 관련되어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살펴 봐야 하는 이유는 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지적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절정일 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은 소외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며, 초기의 실업상태가 향후 계속 실업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옥분, 2005).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라는 경험에 국한하여 청년실업이라는 바탕,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질적 연구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최근 발표된 2011년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주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첫 번째 교육목표는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러한 논의 중심에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교과를 선택하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방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쌍방향 수업참여와 일 체험의 교수·학습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 이러한 교육성과가 대학 및 취업 등 학생 개인의 평생 진로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진로교육'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이지연·정운경·이종범,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탐색과정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Yun, Shin, & Seo, 2010, 재인용). 또한, 자아정체감이 미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확실히 결정되고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Yoon, 2008)를 보낸다. 이에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을 마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긴 유예기를 지속하기도 한다(Kim & Min, 2006).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학점 관리, 외국어 학습,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각종 시험 준비 등을 하며, 주로 사설학원에 의존한다(Min, 2001).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졸업 후의 진로는 회사취업(44.1%), 국내대학원(16.0%), 자격증 취득(12.5%), 유학(10.8%), 자영업(5.2%), 기타(11.5%) 등으로 나

타난 바 있다(Kim, 2003). 통계청(2011b)이 청년층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평균 졸업소요시간은 5년 3개월이 걸리며,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졸업소요시간이 장기화 되는 이유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95.8%)', 여자의 경우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5.6%)', '어학연수 등 현장경험(31.7%)'으로 인한 휴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을 졸업한 청년구직자들의 경우 대부분 재학 중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휴학을 하며,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경과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세대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기를 30대까지 연장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Fukushima, 2005).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Lee & Han, 1998). Super(1990)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자아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전반적인 인지발달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을 진로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상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직업적 자아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확신의 과정에서 명확한 자아정체감이 요구된다(Cho, 2007). 이처럼 학자들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Choi, 2011)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발달적 측면을 다루는 학계의 새로운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쉽게도 그동안 선행된 구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에 집중되어 진행되었고, 최근 심리학, 청소년학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아동학이나 가족학에서의 연구시도가 부족하였다. 경제학에서는 거시적 관점으로 실업의 결정요인(Jeong, 2003)에 대해 분석하는가 하면, 사회학에서는 청년취업자들의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Ban, Kim, & Kim, 2005)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학에서는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Kim, 2009) 등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개인내적 요인들에 중점을 두어 청년들의 취업준비 과정, 개인배경, 성격 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Jeong, 2009), 청소년학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상태의 관계(Nam, 2010)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경향의 결과로 대부분 마련되어진 정책적 대안은 청년실업을 경험하는 개인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청년층의 실질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사회문제의 일시적 해결 그 자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Yu, 2004)는 점이다. 또한, 구직을 결정해야 하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성별, 연령, 학력,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등의 외적요인의 지속적인 타협을 통해서 진로결정(Choi, 2011)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혹은 거시체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과 그 외의 체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발달이 개인과 환경,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연관성을 갖는다(Lea, 2001)는 점에 입각하여 청년실업 당사자인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미시체계, 그리고 미시체계의 영향을 주는 다른 체계들과의 관계 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취업준비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선행된 구직관련 연구들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생애발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원인과 결과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 취업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대처전략, 주요타자들과의 관계변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이들의 생각 등을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탐색하여 심층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최근 대학졸업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취업자나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는 기존 구직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Lee & Kim, 2004, 재인용). 따라서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 과정연구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설정, 사람, 활동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전략인 목적적 선정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Patton(2002)이 제시한 16가지 목적성 있는 표본추출전략 중 동질적 표본추출(homogeneous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미취업 현상을 동질성으로 간주하였다.

청년구직과 관련된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청년실업, 취업, 구직, 진로, 직업 등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의 공통적인 이슈 중

하나는 ‘어디까지를 취업으로 볼 것인가’ 또는 ‘취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근로의 형태, 취업자의 구분, 취업자의 개념 등에 따라 취업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계청(2011a)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기준삼고 있는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취업자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둘째,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셋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자는 미취업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의 기간 동안 취업준비 중인 20대 미혼 남녀로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년제와 4년제를 구분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2004)의 연구에 기초하여 최근 10년 전문대학의 취업률에 비해 대학교의 취업률이 계속적으로 낮은 추이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11개월(통계청, 2011b)이라는 점을 적용하여, 통계적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의 과정까지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미혼으로 규정지은 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15-29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책임 등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청년실업에 대한 분석 시 오류가 생길 가망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남녀로 성차를 구분한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이러한 가치관들이 취업과 관련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취업준비 당사자들의 관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졸업 후 면접 시까지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Blau(1993)가 직업탐색과정을 예비적(preparatory) 직업탐색과 본격적(active) 직업탐색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였다. 한국에서 예비적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집단들은 졸업 전 취업을 대비하는 대학생들일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집단들은 졸업 후에도 미취업상태인 취업준비생들일 것이다. 때문에 졸업 후 본격적 직업 탐색 중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지어 이들의 취업준비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총 32명이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압력에 대한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부모가족의 청년구직자 2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참여자는 30명(남15명, 여15명)으로 구직과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Gender	Age	Failed job	Employment goals	Preparation for employment	Livelihood	Housing pattern	Family information	Economic standard
1	male	25	5th	office worker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2	male	25	80th	office worker	certification study	part-time job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brother	low
3	male	27	6th	public servants	internet lecture	part-time job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4	male	27	15th	electrician	certification study / internet lecture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5	male	27	No answer	office worker	self-study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middle
6	male	26	0th	office worker	certification study / study group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low
7	male	29	20th	technical sales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8	male	25	1th	public servants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elder brother	middle
9	male	26	20th	office worker	self-study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low

“continued”

	Gender	Age	Failed job	Employment goals	Preparation for employment	Livelihood	Housing pattern	Family information	Economic standard
10	male	26	30th	office worker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elder brother elder sister3	middle
11	male	27	4th	english teacher	study group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	middle
12	male	27	2th	auditors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grandfather grandmother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No answer
13	male	26	150th	office worker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No answer
14	male	29	5th	police public servants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middle
15	male	25	6th	police public servants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16	female	22	15th	social worker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middle
17	female	24	10th	librarian	certification study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low
18	female	24	3th	aircrew	language institute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younger brother2	middle
19	female	27	100th	public servants	certification study	part-time job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low
20	female	25	8th	police public servants	self-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middle
21	female	23	1th	secondary school teachers	internet lecture/ study group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younger brother	middle
22	female	24	2th	secondary school teachers	certification study / internet lecture	part-time job parental support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elder sister younger sister3	middle
23	female	22	20th	office worker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younger brother	middle
24	female	25	1th	alternative school teacher	internet lecture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middle
25	female	26	3th	secondary school teachers	internet lecture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brother	middle
26	female	26	3th	public servants	certification study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middle
27	female	26	100th	office worker	self-study / study group	part-time job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middle
28	female	25	No answer	public servants	language institute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father mother elder sister	middle
29	female	25	52th	office worker	English study group	parental support	living with families	grandmother father mother elder brother2	middle
30	female	28	10th	social worker	certification study	part-time job	living on one's own	father mother younger sister2 younger brother	middle

연구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26세이며, 여자는 24세이다. 이들은 평균 1년 1개월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균 24회의 구직실패경험이 있었다. 구직목표에는 남자와 여자가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직을 위해 학원, 인터넷강의, 독학,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용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참여자들이 19명,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에게 지원받고 있는 참여자 4명, 아르바이트로만 용돈을 마련하는 참여자가 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대학 8명,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대학 16명, 지방소재 대학 6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지역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22명), 경제수준은 중산층(23명)이라고 대답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은 참여자들이 집중적(intensive)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였으며, 심층면접 외에 졸업 후 면접 혹은 원서를 낸 빈도,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학습하는 시간, 내용, 장소, 희망취업분야, 희망연봉, 주거형태, 한 달 용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도 부가적 자료로 수집하였다. 심층면접 자료 외 취업준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분석 될 시에는 자료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는 물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들의 실제에 접근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 면접질문은 일상생활은 어떠하며, 구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취업실패에 어떤 느낌을 갖는지, 졸업 전후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구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장소와 시간은 연구참여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양해, 목적설명, 동의서 등 윤리규정을 따랐다. 면접은 1회시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2차 면접도 실시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녹음되었고, 모두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제의 탐색과 분석을 위해 Ely et al.(1991)의 10단계 분석방법을 따랐다. 분석은 공동연구자 2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분석과정에서 의미단위 도출에 대한 논의, 범주 및 중심주제 구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예외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밀하고 친숙한 지

식을 얻기 위해 원 자료(raw data)를 보고 또 보았다. 둘째, 연구참여자 별로 첫 느낌을 기록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 메모도 추가하였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을 주어진 주제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는 권위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한 삶의 경험 속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해내는 의미 생산자로 간주한다(곽영순, 2009)는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자들이 진술한 잠정적인 범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넷째, 앞의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범주들을 다듬었다. 이후에 다섯 번째로 아직도 잠정적인 범주들 속의 자료들을 분류하면서 필요할 경우 상위범주 혹은 하위범주를 새로 설정하였다. 여섯째 방법으로는 원 자료와 범주들을 연결하는 서술적 표현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찾고, 일곱째 그것들이 글쓰기 주제로서 적합한지 계속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표현을 수정하였다. 여덟째로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범주들을 서로 관련짓고 비교하는 가운데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주제문을 작성하였고 아홉째 서로 다른 참여자들의 관점을 통합하여 최종 주제문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만든 주제문의 통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이 신뢰롭게 수행되었음을 검토하기 위해 잠정적인 순환모형을 성립한 후 동료연구자와 전체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는 원 자료, 전사노트, 분석메모, 원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코딩북, 추가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총 A4용지 746페이지, 글자크기 10). 분석결과 556개의 의미단위가 나왔으며, 이 범주들은 다시 하위범주 15개, 상위범주 11개로 묶였다. 최종적으로 의미범주들을 통합하여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IV. 결 과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 과정을 분석하여 구조화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 과정을 사회·문화적 특수성이라고 간주하고 문화주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문화주제는 한 문화의 특성을 일반적, 압축적,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서술적 명제이며, 한 문화의 다양한 규범, 제도, 관행들을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이다(조용환, 1999). 본 연구는 졸업 후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적인 흐름의 축으로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의 변화, 취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미취업 대한 귀인 등 다양한 관점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본문에 체현코드(in-vivo code)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인 청년구직자들을 통해 총 5개의 주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체계 안팎의 상호작용하는 다

Figure 1. Circular Model: Five Stages of Job-seeking Process

양한 요인들로부터 반복적인 피드백에 의해 취업준비, 취업 시도, 취업실패, 취업정체, 취업전환을 순환적으로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구직의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점차적으로 순환구조를 보이며, 다시 취업을 준비, 시도, 실패, 정체,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합한 순환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1. 취업준비

1) 취업의 동기

연구에 참여한 청년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는 동기에 있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적동기는 자부심(여, 16), 성취감(여, 30),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남, 9)라고 하였다. 이외 이치상 전공을 살리고 싶다(여, 17)거나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한다(여, 26)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적동기에 맞춰 취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타인들의 시선이나 경제적 수단 등의 외적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먹고 살려고요. 취업 자체가 내 꿈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남, 2).”라며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구직의 목적을 일축하였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흐름인거 같아요. 구성원으로서 놀 수는 없는 거고요(남, 3).”라며 외부조건에 맞춰 구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은 솔직히 배부른 소리(여, 28)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자신의 꿈과 구직을 이분화하는 동기들은 청년구직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면접자: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남4: 돈 벌려는 목적은..난 돈 없이도 살 것 같은데 환경이 이렇게 만든다고 봐요. 집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 근 30년 공부해서 키워놨는데 주변의 눈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주변사람들 결혼하고 돈 벌고 이러면 부러울 실 거고 내가 쪽 팔리수도 있을거고, 그니까 뭐 굳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세상 기준에 맞춰간다는 거지요. 자발적인 것보단 사지 멀쩡하고 젊은 놈이 돈 못 벌면 장가도 못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한숨을 들이키며) 보는 눈이 안 좋아지니까(남, 4).

2) 취업에 대한 기준

(1)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인식

청년구직자들은 구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과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구직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특히, 청년구직자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위 ‘좋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결정을 좌우했다. 직업선택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업 안정성이었는데, 이들이 규정하는 직업안정성은 연봉, 복지, 적성 3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족되는 개념이다. 제일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이고(남, 8)며, 복지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고(여, 18), 적성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 같다(남, 11)고 정의한다. 특히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잘릴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곳(여, 28)을 선호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곳(여, 22), 결혼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직업(여, 19)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면접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여27: 괜찮은 일자리요? 연봉 많고요. 장기적으로 오래 잘리지 않고 근무할 수 있고 그냥 주 5일 근무하고요. 복지 좋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 좋은 일자리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연봉이요. 주위에 어떤 분 들보면 돈 많이 받고 일 많이 하고 그런 건 참으시는데 돈 조금 받으면서 일 많이 하고 복지 안 좋고 그런 건 또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환경이 똑같아도 연봉 많은 회사라면 그냥 위안삼고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여, 27).

(2) 부모의 기대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일단 규모는 상관이 없고, 전공 불문, 그냥 안정적인 기업,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데(남, 4)를 지원하기를 바란다. 때문에 공무원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았는데, 여자참여자들의 부모님들 경우 결혼하고도 할 수 있는 직업(여, 19)이며, 여자로서 편하고 안정성(여, 26)이 있기 때문이었고, 남자참여자들의 부모님들 경우도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남, 12)이라고 인식하면서 편한 게 최고이라며 그 쪽[공무원]을 더 준비하라고(남, 10)고 부추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무원 준비 중이거나, 권유로 인해 공무원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총 20명(남자10명, 여자10명)으로 본 연구참여자 중 67%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취업이 안 되니까 다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많아(여, 20)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저변에는 불안이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반복적으로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여, 24)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괜찮은 직업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14: 요즘 군대 가기 전에 [공무원]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요. 대학교를 포기해 버리고요. 왜냐면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학비 버려가면서까지 안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거죠. 어차피 4년제 나와도 공무원을 준비하거든요(남, 14).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공부할게 너무 많아 공무원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다(여, 19)고 여겨 취업으로 방향을 우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갈팡질팡 많이 하기도 하고(남, 6), 길을 바꾼다고 해도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걸 [공무원 준비] 포기하자니 그건 싫고(여, 22), [공무원 시험]

잘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복잡하기도 하고 허무(남, 12)하기도 하다. 한편, 이들이 공무원 준비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도 있고,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2년 3년 했는데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일 수도 있고(여, 21), 이것을 안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마땅한 것이 없다(남, 15)는 이유에서이다. ‘이 정도까지 해보고 했는데, 안 되면 계속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올해까지 일단 공부에 매진하고 만약 안 되면 다른 일도 찾아볼 생각(남, 13)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올 해까지 만이라고 다짐하며, 당해가 마지막 시험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한다.

3) 취업준비의 노력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과정에서 ‘스펙 갖추기’는 최고의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들은 스펙에 대해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여, 26)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스펙(남, 10)이라고 여긴다. 스펙은 상대적인 것(남, 8)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쌓으려 노력한다. 참여자들마다 외국어, 자격증, 전공자격관련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취업준비는 전략적이기 보다 맹목적으로 스펙 갖추기에 몰두하였다. 구직을 위한 준비가 스펙 갖추기가 전부가 된 것에 대해 이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 나의 스펙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여, 19)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들에게 스펙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을 이르는 사전적인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성공의 핵심을 스펙으로 개념화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일상은 스펙 올리기를 위한 공부로 전부였다.

면접자: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돼요?

여24: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들어요. 그것 부터 듣고 시작해서 점심 먹고, 그 다음 에 계속 공부하고요 전공서적도 많이 읽어요(여, 24).

2. 취업시도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처음 취업을 시도하는 데 있어 당연히 불을 거라고 생각 안하고(여, 16) 지원을 한다. 큰 기대를 안 하고 문어발식 지원(남, 4)을 하는가 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원서를 내지 않은(남, 6) 참여자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과 관련된

쪽으로(남, 1) 가기를 희망하는데, 막연하게 전공한 거고, 그냥 좋아 보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여, 22) 전공 관련 직업을 탐색한다. 또한, 일단 계속 한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굳어진 것(여, 23)이라며, 자신의 구직방향이 고착되기도 한다.

남2: 제가 이력서를 80군데 정도 쓴 거 같거든요. 면접본건 한 3군데? 그냥 자리 있는데 다 쏘서 넣었죠. 딱히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전공은 살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졸업한지 5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도 없고, 넣어봤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인터넷 취업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뜨는 거 전공 관련 된 거면 무조건 그냥 다..[지원] 못 먹는 감 썰러나 보자(웃음) 결론은 된 게 없지만 호호(남, 2).

이들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취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첫 관문이 서류통과(남, 10)라고 생각하고, 일단 서류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취업캠프를 간다(여, 26)든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면접을 준비(남, 10)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면접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일차 서류 합격된 다음에 준비(여, 16)하는 방식이었다. 구직시도 과정에서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었다. 취업정보를 얻는 방식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정보가 주를 이루었고, 인터넷을 통한 카페 활동, 스터디그룹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구직을 계획하였다.

면접자: 서로 네트워크 되는 건가요?

여21: 네. 같이 공부할 사람 스터디 모집해서 몇 명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주1회 정도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겨울에 1~2월 달에 한번 스터디 했었는데 정리하는 것 면에서 좋았어요. 각자 정리를 나눠서 해오고 모아서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여, 21).

초창기 취업시도에서 주목할 것은 자발적 합격포기이다. 참여자들이 합격된 회사를 안간 이유는 다른데 지원하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남, 3)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봉이 너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거나(여, 29), 다른데 이직을 하게 된다면 경력을 쌓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여, 19)하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주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맞는 걸 계속 할 순 없어서(여, 20)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이어지게 하였다.

면접자: 합격을 했는데 왜 안 가셨어요?

여26: 위치도 위치였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 전공이 아니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죠(여, 26).

3. 취업실패

1) 취업실패에 대한 정서적 반응

연구참여자들의 구직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감정은 패배감이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경쟁에서 진 뒤에 느끼는 절망감(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을 느낀다. 이들은 실제로 [청년실업이] 와 닿지 않았는데, 많이 넣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빠져리게 느끼며(남, 2), 실패가 거듭되면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야겠다(남, 1)고 다짐한다. 일차 서류도 통과 못하는 자신에 대해 엄청 자존감이 낮아지고(여, 16), 생각해보지 못했던 패배감이 많이 들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여, 22). 반복되는 구직실패에 이들은 취업을 만만하게 봤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여, 21)고 깨달으며,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쓴 맛 안보고 좌절 안하고 합격(여, 16)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면접자: 서류 떨어졌을 때랑 면접 떨어졌을 때랑 다른가요?

여27: 많이[강조] 달라요. 서류 떨어졌을 때는 복권을 하는데요. 첫 자리부터 안 맞는 거는 서류가 떨어졌을 때 느낌이구요. 마지막에 여섯 자리에서 다섯 개까지 맞았을 때 하나 틀려서 일등 놓치면 되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면접 떨어지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면접은 더 많이 기대를 하게 되고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 떨어지고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아 속상하고 면접 떨어지고 그러면 술 마셔야지요. 아무래도 좀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서류랑은 다르게 진짜로 의욕이 썩 사라지지요(여, 27).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남, 9)과 불안, 초조, 죄책감,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자기에 대한 미움들이 점차적으로 취업성공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심리내적요인들이 성별, 나이, 졸업년도, 스펙, 주변인들의 반응 등 외적요인과 결합됨에 따라 이들은 취업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불안감 때문에 자꾸 더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 같다(여, 25)고 토로하였다.

면접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

여22: 가장 힘든 일은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아요. 재정도 부모님한테 얻어 쓰는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 면에선 많이 힘들진 않고 지금 이 생활이 나쁘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100%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불안함 때문에 좀 힘든 거 같아요(여, 22).

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할 경우 자기만 비판하게 돼서 안 될 때는 그 [자살] 생각도 들 정도(여, 18)라고 하였다. 장염도 오고(남, 14), 계속 몸이 축 처지는 것(남, 6)을 느끼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참 병원 다녔는데,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것 같다(여, 20)고 진술하였다.

여25: 사실 매일 답답한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제 삶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판적이었어요. 현실자체는 커다랗게 움직이는 튼니바퀴인데, 돌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몸도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그래서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여, 25).

흥미로운 사실은 취업준비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반응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다(남, 10)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처방법 없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공부니까 다른 일은 안하며(여, 22), 어려움은 그냥 신경 안 쓸려고(남, 15) 회피한다. 또한, 나에게 뭐가 주어지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할 자신이 있다(남, 6)며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심리적 위안을 삼는다.

2) 주요타자들과의 관계변화

(1)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이란 의미는 내 결정을 믿고, 기다려주고,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려고(남, 8)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때로는 더 가까워진 느낌을 들지만 솔직히 불편(여, 28)한 존재이기도 하다. 가족관계는 동거여부에 따라 취업압력에 대한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동거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압력에 좀 더 자유로웠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보다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부각시켰는데, 눈치 보이고(남, 6), 밥 한 끼 먹는 데도 엄마 돈을 빌려야 하는 것(여, 28)에 대한 미안함과 부모입장에서 답답해하실 것(남, 13)이라며, 부모를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실패가 가족까지 다 같이 우울증이 와서 이 고비를 잘 버텨야 사회인이 될 수 있다(여, 29)고 다짐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청년구직자들에게 구박을 하기도(여, 26)하지만, 자식들이 취직 못했다고 기죽는 것을 싫어하며(남, 12), 나중에 쉬려고

해도 못 된다고, 지금 너한테 시간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편하게 있으라고(여, 28) 조언한다.

면접자: 취업준비중인데 졸업 전과 비교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17: 똑같은 과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졸업하고도 누군가는 취업되고, 누군가는 못하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과 사소한 결로도 언짢게 되고 하는 거 있어요. 아.. 마음이 아파지려고 하는데, 괜히 짜증도 많이 내고 미안해서.. 가장 미안한 게 부모님이시요. 동생에게도 언니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괜히 좋은 영향 주지 못하고 나쁜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여, 17).

(2) 친구, 선·후배와의 관계변화

연구참여자들의 취업준비 맥락에서 친구, 선·후배와 관련하여 드러난 주제는 단절이었다. 이들은 학창시절 맺었던 유대관계나 연관된 관계들이 일시적이고, 자발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면 언제든지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확신했다. 청년구직자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해야 하는 시기라고 자각하고 지인들과 소원한 관계를 지속한다. 취업한 친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여, 19), 솔직히 말해서 경쟁자(남, 13)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괜한 자각지심에 친구들을 못 만난다(여, 27)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미취업중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공동체적인 경향을 띠며, 친밀한 관계가 된다. 참여자들은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친구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슬프며(남, 12), 서로의 괴리감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여, 24)고 하였다.

면접자: 취업준비중인데 친구들 관계는 어때요?

남14: 취업 한 친구들과하고는 더 피하게 돼요. 취업을 빨리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개네들은 재테크 얘기하고 있고 집이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에 접근을 못 하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가 멀어지는 거 같아요. 자기랑 연관된 분야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해를 해주잖아요. 10년 동안 어울렸던 친구가 이거하나 이해 못해주는데 몇 개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해해주는 거 보면 어 이상하다 생각도 들고 친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되고 정의도 많이 변하는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남, 14).

4. 취업정체

1) 미취업에 대한 귀인

연구참여자들이 각각하고 있는 미취업에 대한 귀인은 자신의 노력부족이라고 판단한다. 합격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노력했기 때문(남, 3)이며, 내가 모자라고(남, 5), 너무 쉽게 생각해 준비가 늦었기 때문(남, 6)에 취직을 하지 못하였다고 여긴다. 이들은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주어진 대로 하다(여, 21) 결국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 이 외에 취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에는 성차, 스펙, 운이 작용하였는데, 특히 취업하는데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다(남, 1)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생각에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취업하는데 있어 여자가 불리하다고 인식하였는데, 그러한 이유에는 여자들은 결혼하면 사회생활 오래하기 힘들고(남, 6), 남자야 남자답게 생기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쉽게 취업할 수 있지만 여자는 외모, 몸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남, 3)한다.

면접자: 졸업하고 나서 이제까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27: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는...저의 스펙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격증도 내세울 만한 거 없고, 그냥 무난한 거 컴퓨터 같은 거나 아니면 회계 쪽으로 자격증.. 그런데다가 토익점수 너무 뛰어나게 950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여, 27).

면접자: 취업할 때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18: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떠나서 오히려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해보여서 힘든 일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있고, 남자가 더 잘할 것 같네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해도 남자는 그만두거나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자는 그런 게 있고 회사 측에서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남자를 더 선호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해요(여, 18).

2) 구직 눈높이 조절에 대한 딜레마

청년구직자인 당사자들에게 눈높이 조절의 중요한 이슈는 첫 직장의 의미이다. 첫 직장이니까 아무데나 못가겠다(여, 23)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는데, 처음 직장 따라서 다음 직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남, 13)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괜찮은 일이라면 초반에는 경력 쌓는다고 생각하고 월급이 짜더라도 다녀야 한다(남, 1)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낮게 가고 싶지는 않으며(남, 4), 시작점이 다르면 확실히 다르다(남, 6)고 인식하였다. 대학 4년 동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직장을 찾아야 하고(여, 17), 투자를 하고 그만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여, 20)이며, 대학생들만 비판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여, 29)고 지적하였다.

면접자: 취업하는 사람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그런 애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10: 저는 눈높이 낮추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4년 동안 배운 것도 있고 힘들게 공부를 했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했거나 그런 것을 보상받는 것은 결국은 좋은 기업에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취업을 할 거면 좋은 기업에 도전하는 게 당연한 건데.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도전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포기를 해야지.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닌 거죠. 나중에 이직을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이직을 하기가 편해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하면 당연히 이 사람 어디, 어디에서 왔다는 사람이나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지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쪽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데, 대기업 경쟁에서 떨어져서 중소기업가기는 쉽지요(남, 10).

3) 일시적인 구직 단념

연구참여자들은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의 이유를 스펙이 부족한 자신으로 귀인 해 자신감이 저하되었고, 구직눈높이에 대한 딜레마, 괜찮은 직업(decent work)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직업 안정성이 구직 눈높이의 화두였는데, 어쩔 수 없이 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회사를 보고 가는 것 같다(여, 27)고 설명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 기대와 사회현실과 너무 갭이 있어서(남, 7) 갈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이 희망하는 일과 지원할 수 있는 일과의 상충으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 이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했었는데, 시험보고 허탈감이 생기고, 2년 정도 하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여, 25), 원서 넣기도 지치고, 연락도 안 오고, 면접조차 볼 기회가 없으니까 지쳤다(남, 2)며, 한마디로 자포자기(남, 10)상태라고 하였다. 이들은 솔직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남, 8), 장기간 정제되어 있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서 상대적 문제가 가장 크다(여, 19)고 생각하였다.

면접자: 요즘도 계속 이력서 넣고 있는 거예요?

여16: 지금 쫓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넣었다가 떨어지고 면접도 보고 왔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지치고 그래서 지금 일단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구요 그냥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안 알아봤어요(여, 16).

5. 취업전환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정체의 상태를 지나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전환을 맞는다. 이들이 전환을 보이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실업에 대한 체감은 높아지며, 하향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실업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구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자각하고, 후배들에게 조언 한다. 물론,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조언은 이들의 인식이 전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자신에 대한 객관화 작업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취업준비에 대해 객관화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객관화 작업은 일시적 구직 정체 상태에서 다시 구직을 준비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 이들의 전략은 계속적인 취업시도에 실패할 경우 진입이 쉬운 곳으로 비정규직으로도 취업(여, 19)을 선택할 것이며, 4대 보험 없어도 아무데나 지원(여, 26)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특정한 분야만 고집을 못하게 되는 상황(여, 29)이고,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여, 22)이라고 인식한다. 내가 그렇게 특출 난 사람도 아니고, 꿈이 점점 사라지면서 돈 버는 것 정도(남, 6)로 취업의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 길을 일단 정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다시 다짐(여, 21)하며,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이 해왔던 것을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 취업문을 두들기려고(여, 17)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스펙으로 서류가 걸러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 사실(남, 10)이라고 인식하고, 또다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여, 20)를 쌓기 위해 취업을 준비한다. 이들은 스펙은 성실도(남, 9)라고 여기며, 자신이 취업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느냐에 대해 평가받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객관화 작업과정에는 자신과 타인, 혹은 외부환경들과의 관계보다는 미취업 중인 현재의 상황만을 중시함으로써, 그 상황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13: 처음에는 되게 높았어요. 점점 깎이더라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쓰다보니까 딱 느끼는 게 내가 정말 20몇 년을 살아오는 동안 뭐 했는지.. 일하게 해주는 게 어디냐 희망연봉까지는 바라지 않죠. 처음에는 4천 5천 받고 해야지 그 정도 받아야 저금도 하고 놀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하. 지금은 솔직히 2천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취업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잘리고 있는 판국에 어떤 경영자가 고액의 돈을 써서 신입사원을 누가 뽑겠어요. 애는 2천 6백을 달라고 하고 애는 2천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애는 대학4년제만 나왔고 애는 석사학위까지 나오고 외국 연수까지 갔대요. 앤 2천만 달래 그럼 애를 쓰지 저를 왜 쓰겠냐고요. 계속 연봉을 낮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아요(남, 13).

2) 정책에 대한 비판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인 청년인턴제를 거론하면서 일제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학력 저임금 제도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턴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정규직을 많이 뽑는다 해도 인턴은 임금 적게 줘도 되고 하니까 인턴을 뽑고, 정규직 채용을 거의 안하고 이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여, 27)된다고 하였다. 비정규직은 불안하다(여, 26)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건 단지 정규직(여, 28)이라고 강조하였다. 때문에 인턴제도는 국민한테 실업률을 조금 좋아보이게 하는 것(여, 19)이며, 미봉책(여, 17)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여23: 인턴을 하면서 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요.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탐색의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게 안타깝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일단 취직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일이 얼마나 나랑 맞는지 본 다음에 할 만하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옮기고 1년 만에 바꿀 수도 있는 거구 그래서 첫 직장을 잘 잡아야하는데.. 더 생각을 많이 해 봐야하는데 실은 생각해볼 시간여유 없이 바로 취업에 떠밀려서.. 학교나 나라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적성 찾기 직업탐색 과정 적성 탐색 그런 거요(여, 23).

하지만, 두 명의(남, 6, 여, 23)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에서 당장 취업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여, 28)하며, 청년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남, 15)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턴제도는 결국 도피처(남, 9)라고 하였다. 인턴제도를 참여하더라도 그냥 잡일 서류

정리, 복사, 커피심부름 그러다 그냥 퇴근(여, 16)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의가 들며, 인턴을 해도 경력으로 인정도 안 되고, 취업할 때 도움이 안 되고 해서 크게 도움 되는 점은 못 느낀다(여, 18)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5군데 인턴지원했는데 한군데도 소식이 없어 인턴 되기도 싶지 않으며(여, 29), 학교 측에서도 취업을 몇 퍼센트에 의존해서 학과와 상관없이 생산직을 권하는 경우(남, 7)도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남, 12)고 하였다.

면접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10: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요. 일단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봐야 되나? 정부에서 하는 게 인턴쉽 뭐 이런 거해서 잡 쉐어링이라고 해서...고통분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봐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실용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인턴 같은 경우에 완전 방치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갔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을뿐더러 가만히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심부름 하나 시키면 하고. 또 계속 가만있다가 아무도 신경 써 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만 둔 친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겨우 내가 이거 돈 받으려고 이리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인턴 뭐 하러 인턴하나..정부에서 뽑으라니깐 일단 채용공고 내고 뽑지 않는 기업도 많고요. 인턴 한다고 그것이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간접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미리 한번 경험해본다거나 하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도 더 많아요. 결국은 인턴 후에 이게 또 다시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깐. 이중이잖아(남, 10).

3) 후배들에게 조언

연구참여자들은 후배들에게 취업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여, 29)하다고 조언하였다. 졸업하고 나서 1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회(여, 22)가 되며,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다라면 이렇게 조급하지 않았을 것(여, 26)이라고 하였다. 취업을 졸업 후에 생각해 늦었다(남, 13)고 반성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노력하면 안되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라(남, 5)고 권고하는가 하면, 무조건 볼 거 없이 자기 스펙을 쌓아라(남, 2)라고 하기도 한다. 이들의 조언 속에서 주목할 것은 반성적 사고보다는 맹목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발언인 “무조건”이란 표현의 반복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무조건 아무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여, 23)고 진술하기도 하고, 무조건 자격증이나 토익성적 올리기 보다는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좋고(여, 19), 이것저것 찢어 넣는 것도 좋은데 한 우물(남, 9)을 파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은 연구결과에서 이들이 보여준 취업준비 경험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들의 양가적이면서도 엇갈린 태도는 자신들을 청년구직자들의 모습에서 타자화하는 모습일 수 있으며, 자신이 희망하는 취업준비의 모습일 수 있다. 이들은 취업준비에 대한 이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취업준비에 대한 질적인 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격증 개수 등의 양적인 것을 계량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면접자: 취업준비생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남6: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취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목표를 세우고 이 일 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걸 못 찾으니까 예라 그냥 취업이나 해야겠다 그거거든요. [주객전도 된] 그 취업을 위한 준비로 바쁜 거죠. 무엇을 해야겠다.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러서 확실히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아쉬워요(남, 6).

V. 논 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된 취업에 대한 개념, 어려움, 대처전략, 주요타자들과의 관계 변화 등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졸 청년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부모의 기대가 결합되면서 취업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취업준비의 노력을 통해 취업을 시도한다. 하지만, 실패가 거듭되면서 미취업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규정짓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구직을 일시적으로 단념하는 정체시기를 맞는다. 이들은 정체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 대한 객관화 작업, 현실과의 심리적 타협을 통해 전환 시기를 맞아 다시 취업을 준비, 시도, 실패, 정체,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 과정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이

러한 순환 고리를 단절시키지 못함으로서,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별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준비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에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부모 또는 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터득한 관찰학습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김애순·윤진, 1997).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선택과정을 앞서 제시한 Ginzberg(1968)의 직업발달 3단계에 대입해 해설해보면, 참여자들은 직업선택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환상은 갖지 않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할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잠정적 단계, 자신의 욕망을 실제의 직업 세계로 전환시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실제 선택 단계에 이른다.

문제는 각 단계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흥미, 능력, 개인의 가치를 고려하는 시기인 잠정적 단계와 자신의 욕망, 희망과 현실을 타협할 필요성을 느끼는 실제 선택 단계가 혼재되어 있다. 즉, 청년기입에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이들의 직업선택 과정은 다소 역순적인 경향을 띤다. 예컨대, 취업의 순차적 과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스펙 채우기가 되어야 하며, 그것에 도전을 하는 것이 규범적인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스펙 갖추기에 몰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맹목적인 도전을 한다. 이처럼 구직준비에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자아탐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가치혼재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일과 지원할 수 있는 일과의 상충으로 심리적 갈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갈등은 취업준비의 방향성을 잃는 결과를 양산한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은 최고학부에 진학한 지적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집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 문제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김도환·정태연, 2002) 자기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을 개인적 과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참여자와 가족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직업 안정성에 두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꿰찬 일자리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직업안정성에 부합되는 곳을 찾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직업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이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들이 청소년기에 겪었을 외환위기(IMF)사건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1997년 당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청소년은 취업이나, 결혼 및 출산 등 다양한 성인 활동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처해 있어 청소년기 생애사건의 영향은 청소년의 이후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Elder, 1985).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나 행동상의 문제, 성취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기(Voydanoff, 1990)때문에, 청소년기에 외환위기라는 생애사건은 당사자 개인과 가족에게 10년 후 현재의 구직을 결정 하는데 경제적 불안을 소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직업안정성에 두었을 가망성이 있다. 참여자들은 계속되는 경제난, 청년실업을 예로 들며 사회의 불안정한 경제 때문에 불안, 초조, 조급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환경에서 자란 부모님들의 경우 조연의 폭이 좁아 직업에 대해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으며, 한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직업의 종류가 고도로 전문화·세분화되면서 직업선택은 더욱 다양해지고, 어려워졌다. 결국 다소 불확실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이 두 가지 영향요인의 절충된 조건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타협한다.

둘째,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을 시도하고 실패하며, 이에 따른 어려움에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이 거듭될수록 주요 타인들과의 관계적 변화를 맞는다. 취업준비 경험을 하는 기간 동안 4년제를 졸업한 청년구직자라는 범주에서 주목할 것은 합격을 해도 자발적 실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속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업은 보다 좋은 일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직이론을 뒷받침한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스펙 올리기에 몰두하고, 취업과 관련된 내적·외적 요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취업시도와 실패의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결혼전기·구애기 과업을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한국인의 가족생활주기의 문제점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관계가 덜 위계적이어야 함에도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다. 때문에 부모가 성인자녀의 의존성을 부추기거나 반대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정문자 등, 2007). 계속되는 취업난에 경제적 자립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우려한 가족생활주기의 미해결 과업의 문제는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청년구직자들도 용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 대부분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이었으며, 부모님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공부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경제신문(2011)은 1995년 좋은 일자리 수가 412만 7,000개로 2009년보다 7만개가 많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는 1995년 18만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에는 29만3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 재수생으로 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인력수급이 불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의 눈높이와 일자리와의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는 청년실업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직실패에 대한 패배감, 좌절감, 허탈감 등의 심정들이 구직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지면서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정체기 현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라도 취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빗대어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청년구직자들은 미취업에 대한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부족이라 여기고 더욱 취업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괜찮은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구직이 장기화 되고, 구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을 미루기 때문에 심할 경우 구직단념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남재량(2011)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구직니트 증가의 주된 원인을 취업준비자의 증가로 보고 있으며, 2011년 국내 비구직 무직자 및 청년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현황이 1,032천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분석하였다.

청년실업에 대한 여파는 구직단념자 발생 외에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독신성인들의 증가를 야기한다. 또한, 부모의존 독신성인의 증가는 만혼현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저출산의 저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1, 재인용).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서 기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장년층을 둘러싼 경제상황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ee et al., 2011). 이처럼 청년실업 현상은 개인의 직업 선택 영역을 넘어 다양한 외부요인들이 상충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구직에 대한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각의 변화를 보인다. 이들은 4년제 학력, 자격증, 어학연수 등이 자신들이 투자한 목록이라고 여기며, 구직선택시 철저히 득과 실을 따져보았다. 이는 보상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사회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손익을 계산하는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신들이 투자한 가치가 저하됨을 인식하고, 점차 높았던 구직에 대한 기대를 조절한다.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가장 갈등적인 요소는 첫 직장에 대한 의미였

다. 졸업 후 1년의 직업적 지위는 향후 직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Richard, 1984), 중등교육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첫 직장은 직업적 위치와 수입을 결정짓는데 중요(Lee & Lee, 2008,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좋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여겨 졸업유예를 했던 것이 오히려 장기화된 취업준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일시적 구직 단념의 정체기 상태에서 취업의 전환기를 맞는다. 전환적 사건이 있었다기 보다는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객관화 하는 작업을 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식, 대학생 활과 취업준비 과정을 반추하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바닥치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또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계기를 맞는다.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전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준비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이는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용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으며, 구직에 요구되는 능력을 쌓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요구는 증가하나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부족하고, 일자리 수에 비해 구직자들은 많아 상대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구직자들은 실업에 대한 체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비교한 Song(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과 관련된 주요 대책은 크게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인프라구축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수요 측면은 청년층을 흡수할 만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자인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확대하는 대책으로 인턴십(internship)제도와 공공근로사업, 해외취업지원, 창업지원, 취업관련 보조금을 들 수 있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청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업진로지도, 직장체험,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인프라구축 측면은 청년층의 취업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업지원기능 강화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에서 취업까지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실업의 여러 대책 중 일제히 인턴제도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턴제도 외에 해외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정책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지 않는 청년구직자들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들은 노동시간 대비 부적합한 임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전시 정책,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질, 다양한 고용창출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년구직자들은 직업이 단순히 일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해 계획하고 설계하는 진로탐색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직업의 세계에 들어설 경우 불행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Yun, Shin, & Seo, 2010)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자신의 흥미, 특성 등이 고려된 직업의 탐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실업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은 이들이 직업을 신중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에 있어 제한적이다. 물론, 직업이 개인적 선택이니 만큼 개인의 노력과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청년구직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모순적이게도 이들은 후배들에게 인턴제도의 중요성과 다양한 경험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자신들은 다소 전략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생들과 만의 동맹적 연합과 주요타인들과의 관계적 단절은 취업준비 과정에 대해 자신은 물론, 외부 관찰자가 투입과 산출 간의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일시적이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관계적 단절을 하고,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는 사고방식은 내부자원은 물론 외부자원으로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외부체계와의 관계를 고립시킨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해 언론 매체들의 취업난, 경제 불황 등의 연일된 보도는 외부자적 시각이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만 보는데 한계를 갖으며, 청년구직자들 또한 이러한 것을 매개로 심리적 보상을 하고 있었다. 청년구직자들은 미취업 상태인 구직자들과 만의 동맹군으로서의 연합이 아닌, 외부자원과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관계 변화에서 지금의 미취업상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 곽영순(2009). *질적 연구-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국민일보(2010). '88만원 세대' 2010년 졸업 보고서 대출 받아 스펙 만들기... 졸업장은 빛 문서. 2010. 3. 04.
- 김도환 · 정태연(2002). *청년기의 자기탐색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접근*. 서울: 동인.
- 김애순 · 윤진(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월간노동리뷰*, 72, 29-40.
- 이지연 · 정윤경 · 이종범(2010).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문자 · 정혜정 · 이선헌 · 전영주(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도: 교육과학사.
- 통계청(2011a). 2011년 11월 고용동향.
- 통계청(2011b). 201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한국경제신문(2011). 대학졸업생 年 18만명→29만명...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만 늘어. 2011. 12. 04. 5면 3단.
- 한국교육개발원(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동향 분석*. 제24차 KEDI 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 Ban, J. H., Kim, K. H., & Kim, K. H.(200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employee's labor mobility and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3), 73-103.
- Blau, G.(1993).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46, 313-330.
- Cho, M. S.(2007).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oi, E. Y.(2011).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nbuk.
- Elder, G.(1985). *Families, kin, and the life course: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G. Elder(ed.), *Life course dynamics: from 1968 to the 1980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y, M., Anzul, M., Friedman, T., Garner, D., & Steinmetz, A. M.(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s within circles*. London: The Falmer press.
- Fukushima, M.(2005).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stadolescent" generation: focusing on korean and japanese 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Ginzberg, E.(1968).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Y.: McGraw-Hill.
- Jeong, S. Y.(2009). *Factors affecting on depression while potential workers are preparing the job*.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Jeong, Y. U.(2003).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korean youth's unemployment prob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W.(2003). A survey on work attitude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6(1), 211-242.
- Kim, K. H. & Min, H. Y.(2006).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73-82.
- Kim, S. J.(2009). Development and effect verification of group career coaching for university students by reality therap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1), 39-52.
- Lea, E. K.(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K. & Kim, D. I.(200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07-123.
- Lee, K. H. & Han, J. C.(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 Lee, S. G. & Lee, J. K.(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 Lee, Y. J. & Lee, K. H.(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he moderating effect work valu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2(3), 47-70.
- Lee, Y. B., Lee, Y. W., Choi, H. J., & Lee, H. Y.(2011). An explorative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2011. 3), 5-30.
- Min, H. R.(2001). *A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costs of the private tutoring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m, C. Y.(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work factors and preparation of employ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353-375.
- Patton, M.(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Richard, E. W.(1984). Job search discouragement and older worker: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4, 279-304.
- Song, B. G.(2009). *A comparative stud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of countermeasure for youth unemployment in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Kyounggi-do.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olbert, E. L.(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MA: Houghton Mifflin.
- Van Esbroeck, R., Tibos, K., & Zaman, M.(2005). A dynamic model of career choic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5, 5-18.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Yoon, Y. R.(2008). An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4(2), 125-145.
- Yu, E. J.(2004). *A study on the high-educated people's career behavior according to chronic youth unemploy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un, M. H., Shin, H. S., & Seo, H. J.(2010). A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bout vo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4), 305-327.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 접 수 일 : 2012년 01월 10일
- ☐ 심 사 일 : 2012년 01월 31일
- ☐ 게재확정일 : 2012년 03월 21일